

군산항 활성화 홍보 설명회 개최

강임준 군산시장, “비용 절감·물류환경 변화 적극 대응하면 성장·도약 기회 제공” 이용 당부

군산시는 지난 23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국내외 선사와 전라·충청지역 수출입 기업 등 물류업체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해 신규 물동량 유지를 위한 ‘군산항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군산항만물류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후원했으며, 군산항 이용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서해중부권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

는 군산항의 장점과 비전, 다양한 인센티브와 군산항 개발계획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산항 현황 및 이용 혜택의 설명과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군산항의 역할에 대한 특강 등이 이어졌으며, 군산항 부두운영사와 선사, 항만유관기관이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해 수출입 기업들과의 즉석 상담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강에 나선 박근식 중앙대 교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출입 교역과 물류-운송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과 동남아 지역간 물동량 파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내의 경제 약화와 해운경기의 침체로 인해 물류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산항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군산항은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군산항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군산항의 총 물동량은 1,377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5만7,163TEU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세미나를 개최했다.

‘침체된 군산경제에 보탬’

군산시,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계약 워크숍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전국 지자체, 교육청 계약담당 공무원 및 한국지방학회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세미나·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에서는 전국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1박 2일간의 뜻깊은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교육장 시설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숙박과 음식, 관광 등

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시내 주요구간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군산시의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승복 부시장은 “침체된 군산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유치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에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초석 다진다

국회 ‘미래·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서 익산역 ‘선정기준 평가’ 후보지 제안

국회 정성호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공동주최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김시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는 ‘남북(유라시아)철도 시발역의 선정기준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남북철도 시발역으로 서울역, 광명역, 삼성역, 부산역, 목포역을 추천하였고, 익산역을 포함, 오송역과 동대구역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장항선 등 4개 철도가 분기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철도역인 점을 감안해 시발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인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머지않아 엄청난 물동량 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는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여 전주~군산~김제 등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계획 수립 및 K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발역으로 선정되면 국제간 이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CIQ (Customs : 세관검사, Immigration : 출입국관리, Quarantine : 검역)를 수행할 수 있어 여객중심의 거점역 기능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는 유라시아 철도거점 기반구축 및 국제화물운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만금 배후 물류유통기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서남부권역의 국제물류단지 전초기지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철도 시발역 후보지로 제안됨으로써 향후 국제 여객과 익산시 준비중인 물류 중심 유라시아 철도 허브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역 중·소상인 동반성장 가능해지나

익산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시책 적극 추진

익산시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과 창업지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의 일부 지원 및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판매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카드수수료 0.3%(업체당 14만4,000원)이다.

또한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1년간 공제하고 있다.

가입장려금 연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약 8,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카드수수료 및 소상공인공제가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상인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판매 소상공인들이 직접 파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유적지·주요 명소 발전방안 모색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지역 내 역사문화콘텐츠 활용과 관광 명소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관내 문화 유적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백제 역사 유적 현장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23일에는 쌍룡, 왕궁유적전시관, 미륵사지, 나부위성당, 교도소 세트장, 24일에는 함라마을 삼부자집, 곰개나루 캠핑장, 입점리고분전시관 등을 찾아 이들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둘러본다.

이날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방문한 조규대 의장은 “익산이 백제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 탐방에 함께 한 의원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커져가는 애郷심을 느낀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고민하며 연구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시민과의 대화 특&톡’ 시간대 오후 2시로 변경

군산시가 형식을 탈피한 소통행정과 실질적인 시민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특&톡’이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기존 오후 4시에서 2시로 시간대를 변경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 추운 날씨와 짧아진 낮 시간대를 고려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간대를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진행된 ‘시장과의 특&톡’에는 13명의 시민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부가가치세 1억4000만원 환급받아 지방세수 증대

정현울 시장 “환급금 지역 복지 등 주요 시책 추진에 쓰여질 것”

익산시가 올 한 해 익산세무서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1억4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올해 27기 예정분까지 익산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전수 조사하여 환급 신청한 결과 익산세무서로부터 총 4번의 신고를 통하여 1억4000만원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12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17개의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성과는 생소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

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세법연찬을 통하여 회계과 이창수 주무관이 직접 지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분석해 환급 청구하는 등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정현울 시장은 “환급금은 익산시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쓰여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익산시의 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통한 공제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사항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